

감시원 없는 초소...산불 예방 '구멍'

문 잠기고 직원 없어...단속기간 끝나면 철수 지자체 "예산 문제 등 인력충원 어렵다" 호소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자체에 산불 비상령이 내려졌지만 광주 관내 산림 감시초소는 잠겨있고 산불 감시원도 없어 산불 예방에 빨간불이 켜졌다.
1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매년 봄철 2월~5월 가을철 11월~12월로 나눠 산림초소를 운영하고 있다.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산불 감시원들이 산불초소에서 상주하거나 순찰을 돌며 예방활동 등을 펼친다.

문제는 이들 모두 기간제 근로자로 집중 단속기간이 끝나면 모두 철수해 산불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
실제 이날 오전 동구 깃대봉 일대. 운동기구가 즐비한 등산로 일대에 컨테이너 1개 동 크기의 산불감시초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초소에는 '순찰 중'이라는 문구가 무색하게도 초소는 텅 비어 있었다.
서구 개금산 정상에 설치된 산불감시초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매일농장 일대

등산로를 40여 분간 따라 올라가자 약 7m 높이 산불 감시탑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감시탑 문은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광주시는 예산문제 등으로 1년 내내 감시인력을 배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가 연간 산불예방으로 투입하는 예산은 14억원에 달한다. 평균 자치구별로 평균 1억4,000여만원을 산불 예방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광주 지자체 관계자는 "산불조심기간에는 별도 예산이 투입 감시원을 상주시킬 수 있지만 그 외 기간에는 예산 문제 등으로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주 1회 담당자들과 순찰을 도

는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산 문제로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인력을 운영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면서 "산불예방을 위해 자치구에서도 수시로 순찰을 도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감시초소보다는 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즉각 대응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주시 산림 총 30개소 중 CCTV 카메라 설치된 곳은 8개소에 설치된 카메라 8대가 전부다. 이 또한 24시간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산불감시인력이 부족해 13일 오전 서구 개금산에 설치된 산불감시탑의 출입문이 잠긴 채 방치돼 있다.
강용일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CCTV 설치를 늘리고 24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요원을 배치해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화재 발견 시 즉각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나라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2차 소송

광주·전남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소송을 제기한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광주·전남 지부는 14일 광주지방법원에 집단소송 2차 소장을 제출하고 광주지방법변호사회관 6층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일제 노무 동원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밝히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피고 기업들은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일본 정부는 오히려 수출규제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이나라 기자



설맛이 직거래장터 13일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설맛이 직거래장터에서 주민들과 구청직원들이 지역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동부교육장 재공모 한 명 지원

광주 동부교육장 공모에 단 한 명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모에 김철호 조봉초등학교 교장만 단독 지원했다. 시교육청은 1차 공모에서 지원자가 한 명 밖에 없어 재공고 했지만 추가 지원자가 없거나 홀로 지원에 그쳤다.
시 교육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격 심사를 거쳐 김 교장을 오는 3월 1일자로 교육장에 임명하기로 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내정설이 종종 제기돼온 데다 학교장으로 정년퇴직하길 원하는 교단의 분위기 등 여러 요인이 맞물려 생긴 현상 같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국회의원 후보 자질·공약 평가

총선시민모임 출범...정치개혁 운동 나서

광주시민들이 제21대 총선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평가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기 위한 정치개혁 운동을 펼친다.
총선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주축이 돼 구성됐다.
지난해 6월 총선 기획단 구성을 시작으로, 정치개혁 토론회, 워크숍 등의 과정을 거쳐 출범했다.
시민모임은 좋은 후보 선정·당선 운

동, 국회의원 특권 폐지·정치개혁 운동, 투표를 향상을 위한 유권자 참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오는 20~31일 총선 예비후보와 현역 국회의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한 뒤 답변 자료를 평가해 오는 2월 17일 '좋은 후보'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시민모임은 후보들이 낸 답변서를 토대로 철학, 문제의식, 대안, 병역, 납세, 범죄 등을 종합해 좋은 후보 여부를 평가한다.
/이나라 기자

조업 중 납북 어부들 50년 만에 재심 '무죄'

조업 중 납북된 어부들이 50여년 만에 재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태호)는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사망) 씨 등 7명 어부의 재심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원들은 지인들에게 단순히 북한에서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 했을 뿐이다"며 "실제 선원들이 어로한계선을 넘어 작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광민 기자

이씨 등은 연평도 부근에서 조기잡이를 하다 지난 1967년 5월 24일 자정께 어로한계선을 넘어 작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국내로 송환돼 주변인들에게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반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항소심은 반공법은 무죄로 판단하고 수산업법 위반만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형을 확정했다.
/조기철 기자

시교육청 감사관 12명 응모

시 교육청 개방형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일반임기제 3급 상당으로, 연봉 7,000만~8,000만원 수준이다.
이번 공모에는 광주·전남지역 현직 변호사 2명과 감사원 간부, 지방자치단체 임명직 감사관 출신, 교육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지원했다.
/조기철 기자

시 교육청 개방형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일반임기제 3급 상당으로, 연봉 7,000만~8,000만원 수준이다.
이번 공모에는 광주·전남지역 현직 변호사 2명과 감사원 간부, 지방자치단체 임명직 감사관 출신, 교육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지원했다.
/조기철 기자

"음주 운전 말리지마"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A씨가 말리면서 서로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른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음주운전을 말리면 감사해야지. 서로다투면 어떻게 하느냐"며 "술을 마시던 가까운 거리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고 허를 찌른다. /김종찬 기자

○...1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전남 새벽 1시께 서구 농성동 한 마트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B씨가 오토바이를 탑승하려

<h2>장성토지 [급매]</h2> <h3>광주에서 20분</h3> <p>(장성군청~장성댐사이) ⇒ 국도도로 12m접(앞면30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평수 1,000평, 매매가 6억 ② 평수 1,080평, 매매가 시세 10억 <p>↳ 급매가 6억원 ⇒ 전원주택, 물류창고, 사무실 투자적합</p> <p>■ 추천 물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성을 용강리 국도변접합(760평) → 매매가 8천5백만 ② 장성 야은리(계획관리)500평 → 매매가 4억7천만원 ③ 장성남면월정리(1093평) → 매매가 6억5천만 ④ 담양읍메타세쿼아도로접(1470평) → 매매가 8억2천만 ⑤ 광주서구서창(197평)시청에서20분거리 → 매매가 5억9천만 <p>010-6670-9800</p>	<h2>상가매매 상무지구</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치평동상가 6층 [80평] (유형주점,카페,노래방적합) - 즉시입주가, 시설비없음 - 콜롬버스영화관 바로 앞 - 감정가 4억5천만원 - 매매가 2억5천만원 ② 치평동상가 7층 [60평] - 즉시입주가, 시설비없음 - 전망최고 - 감정가2억8천만원 - 급매 ⇒ 1억5천만원 <p>■ 추천 물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광산구 첨단 쌍암동상가 10층 [24평] - 매매가 8천만원 (임대원료 -보300, 월44만원) ② 용봉동 원룸 매매 [툼15개, 주택1] - 매매가 6억9천만원 <p>010-6670-9800</p>	<h2>경매교육 [기초반·특수반]</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초 실전반 모집 (무료강의 병행) ① 기초이론+실전 ② 중급 실전반 ① 중급이론+실전 ③ 고급 특수반 모집 <p>이제 특수경매만이 큰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 엔피엘) ※10억짜리 부동산 ⇨ 3억에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전문반 모집 · 책상, 컴퓨터 제공 · 주1회 물건분석 스터디 <p>⑤ 경매투자 연30%수익가능 · 근저당 설정시 연20% 가능</p> <p>010-4667-9820</p>
--	--	--